

구제역 등 악성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농가 행동수칙

- 3~5월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 최근 북한, 중국 등 인근국가 구제역 지속 발생... 유입방지가 최우선 과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북한 평양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북한, 중국 등 가까운 인근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악성 가축질병의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2002년 이후 구제역 재발방지에 대한 청정화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양돈농가 각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 구제역 특별방역계획... 구제역 방역 농가의식 '강화'

이에 정부와 양돈협회 등을 중심으로 3~5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구제역 방역에 대한 농가의식을 강화하는데 더욱 주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로 3월 1일부터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관심 경보'를 발령키로 하는 한편, 시·도 및 농협,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가 함께 결의대회 및 방역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휴대축산물 반입 사례가 2만9천 2백건으로 전년도대비 30%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해외로부터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축산물 위험국 운항노선(13개국, 37개노선)을 집중 검색키로 하고 탐지건 투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입건조 중 중국 등 위험국산은 2회 소독 및 정밀검사 후 반입토록 하고, 외국인 농업연수생의 입국 및 취업교육시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방역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돈장에서 근무하는 불법 체류자를 파악, 고용주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봄철을 맞아 황사도 발생하고 있으니, 양돈장에서는 다음의 구제역 및 황사 발생시 방역조치 사항을 숙지하시고 구제역 유입 및 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농가 행동수칙

1. 외국 여행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외국여행 시 농장이나 축산관련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합니다.
- 귀국 시에는 돼지고기, 족발,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농장을 방문했을 경우 공·항만에서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소독 등 검역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 도착 후에는 의복 등에 대한 세탁·소독과 목욕을 실시하고, 최소한 2주 이상 축산농가 방문을 금지합니다.

2. 철저한 농장소독과 차단방역이 기본입니다!

- 농장 안과 밖을 주기적으로 소독합시다.(주 1회 이상)
- 농장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구제역 등 악성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농가 행동수칙

실시합니다.

-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소독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개인소지품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외출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 방역교육을 실시합니다.
- 남은 음식물의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심부온도 80°C에서 30분 이상) 급여합니다.

3. 소독제 사용요령을 준수하여 철저히 소독합니다.

- 분변, 오줌, 사료 등을 철저히 청소하고 난 후 천장, 벽, 바닥 순서대로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주변 지역에도 빠짐없이 소독을 실시합니다.
- 소독약은 적정농도를 유지하도록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살충·구제를 철저히 실시합니다.

- 가축질병을 차단하는데 있어 살충(파리·모기 등 구제) 및 구제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 파리 등 해충은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묻혀 전파시킬 수 있으며, 쥐도 전염병 매개체로서 전파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구제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5. 농장 임상관찰 중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합시다!

- 전국 어디서나 ☎1588-4060
☎1588-9060

▣ 황사 발생에 따른 가축 관리 요령

-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의 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킬 것
-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조·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을 것
-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방목장의 사료조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도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
- 겨울철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솔이나 브러시로 털어낸 후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보온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봄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 목체를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할 것
- 황사가 끝난 후부터 1~2주간 환축 발생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것

▣ 축주들은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환축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읍·면, 시·군, 시·도 및 가축방역기관(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림부 등으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열, 식욕부진, 유량감소 및 심한 거품성 침을 많이 흘림
- 코·입·입술 및 혀 등에 물집(수포) 또는 궤양 형성
- 젖꼭지에 수포·가피·궤양이 형성
- 발굽(지간부)에 수포, 가피 및 궤양 등으로 발을 절뚝 거리면서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을 나타냄

▣ 황사발생 기상정보 쉽게 확인하는 방법

- 기상청 : (02)841-0011, 831-0365 국번 없이 131(<http://www.kma.go.kr>)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031)467-1851, 1853 (<http://www.nvrqs.go.kr>) **양본**